

제목: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신명기 32편 7-14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쉽게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던 그의 백성들이 늘 그래왔기 때문에 감사를 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 1) 하나님의 택하시고 _____ 때문입니다. (8절)
- 2) 늘 _____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
- 3) _____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13-14절)

지난주일 헌금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New Heart to God" (II Cor. 5: 17)



추수감사 주일예배 Thanksgiving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 양 다 같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신명기 32편 7-14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Deuteronomy 32: 7-14 구약 313 페이지 President
- 말 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성민 목사
Message Give Thanks to Our God Rev. Kim
- 찬 양 589(308)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다 같 이
Praise Far and Near the Fields are Teeming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The Lord Leads Always Me All Together
- * 축 도 설 교 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가까운 곳의 감사 제목)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사다. 동부 서부를 몇 번씩 이사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다녀보니 미국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 것 같더냐?”고 질문한다.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여기 저기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장소를 골라서 거기가 제일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었다. “서부가 제가 살았던 동부 보다는 많이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았던 필라델피아와 뉴저지보다 서부에 있는 LA와 오레곤이 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했기 때문이다. 도로 사용료를 낼 필요도 없고, 날씨 온도 차도 그런대로 크지 않으며, 주위에 마켓부터 홈 디포(Home Depot) 에 이르기까지 모두 찾기 쉬운 가까운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다. 날씨와 공기 그리고 산과 바다를 논하기 전에 서부가 동부 보다는 더 살기 편리해서 좋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로 불만과 불평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다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거기에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다니며 은혜를 받는다면 복 많이 받은 인생이다. 더 나가서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자연을 대하며 아주 가까이에서 그 혜택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 바로 아래가 여기 아닌가?

하지만 내 스스로를 보면 늘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기보다 나에게 불편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불편할 것을 미리 불평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을 본다.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는 뜻이다. 또한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하게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이다.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일들 보다는 기대가 되는 일들이 더 많고, 힘든 일들 보다는 하나님께서 복된 것들을 내 주위에 더 많이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하게 된다.

지금 내가 당하는 감사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인생의 전부 인 것 같지만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 인생 전부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고 더 잘되고 행복하게 될 일들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알면 믿음의 감사를 드리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곳이고 또한 행복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감사의 제목이 많다. 가까이는 혼란 가운데 있던 내 마음을 더욱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2. 기도의 삶

하루 30분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모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 3)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 4)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 5) 새로이 사역 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아동부)
- 6) 하나씩 새롭게 진행 되는 교회의 사역들이 잘 정착되도록
- 7)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 8)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3. 교회 모임

12월7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마다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이번 주 묵상 성경 구절

- 월요일: 야고보서 2장 14-26절
화요일: 야고보서 3장 1-12절
수요일: 야고보서 3장 13-18절
목요일: 야고보서 4장 1-10절
금요일: 야고보서 4장 11-17절
토요일: 야고보서 5장 1-20절

5. 합동행사

12월 9일(주) 오전 11시 St. Andrew's 교회 선교 바자 참여

6. 생명의 삶

12월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수고 하신 선물로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5입니다.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